

도입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 Jesus Shed His Blood for Me

1.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2.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3.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4.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후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1. Jesus Shed His blood for me, Bore, for our salvation,
On His cross, the agony Of a lost creation.
 2. For what crime should He be killed, For His killers praying?
Mad, that mindless mob has willed Their Messiah's slaying.
 3. None there lives who does not know Sin, bloodied as crimson;
But the cross makes white as snow All in Christ's dominion.
 4. Jesus, oh so fair art Thou! My good Friend, my Savior,
Thy grace, only, saves me now, And from hell forever.
- Chorus) Jesus, Lord, Jesus, Lord, For my sins they slew Thee.
Now by Thy dear blood restored, Draw the sinner to Thee. Amen

본문 요한복음 3:16-18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John 3:16-18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17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18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설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용서에 대해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6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사랑과 진노가 함께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중독이나 학대로 인해 무너져 가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파괴하는 악에 대해 아무런 분노도 느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악에 대해 반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묵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나 인간을 향한 증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악과 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것들에 대한 그분의 의롭고 거룩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죄의 피해자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나 축복, 혹은 도덕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더욱 놀랍고 위대한 말씀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거룩하심으로 인해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시거나 자신의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축량할 수 없는 사랑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경고인 동시에 초청입니다. 복음은 죄의 심각성과 심판의 현실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진리를 보여 줍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운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요한복음 3:17).

We love hearing about God's love, grace, mercy, and forgiveness. However, John 3:36 tells us that the wrath of God remains on those who reject and do not believe in the Son. How, then, can a loving God also be a God of wrath? Can love and wrath coexist in the character of God? God's love and wrath are not contradictory. In fact, God's wrath flows from His holy love. When we truly love someone, we cannot remain indifferent to the things that harm or destroy them. Imagine parents watching their child being destroyed by addiction or abuse. Would loving parents simply stand by without feeling anger toward the evil that is destroying their child? Genuine love responds to evil. In the same way, because God is perfectly loving and perfectly holy, He cannot overlook or tolerate sin. God's wrath is not uncontrolled anger or hatred toward humanity. Rather, it is His righteous and holy response to all evil, sin, and everything that stands against His holiness. However, our greatest problem is that we are not merely victims of sin; we are sinners ourselves. John 3:19 tells us that people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We have chosen our own desires over God's will, and our sin has separated us from Him. The gospel is not simply the good news that God wants to make our lives happier or more prosperous. The gospel is the good news that through Jesus Christ, we are rescued from God's righteous judgment and wrath. What we need is not merely comfort, blessings, or moral improvement. We need salvation. This is what makes John 3:16 so extraordinary and powerful. The very God whose holiness demands judgment against sin is the same God who, out of His great love, provided the way of salvation. God did not overlook our sins or compromise His justice. Instead,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to bear the judgment that we deserve. At the cross, God's righteous wrath against sin and His immeasurable love for sinners met. Jesus willingly took our place so that we could receive forgiveness and eternal life through faith in Him. God's love is not demonstrated by His willingness to ignore our sins, but by His willingness to give His own Son to save us from them. At the same time, God's wrath reminds us of how lightly we often take sin and how serious sin truly is. Unless we understand God's holiness and judgment, we cannot fully appreciate the greatness and wonder of His grace. The gospel is both a warning and an invitation. It warns us of the seriousness of sin and the reality of judgment, while also inviting us into the extraordinary love and salvation of God revealed through Jesus Christ. The cross reveals two powerful truths: Our sin is so serious that Jesus had to die for us, yet God's love is so great that Jesus willingly died to save us. The God of love is also the God of righteous wrath. And because of His great love, He has made a way for us, sinners, to be saved (John 3:17).

1.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도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Why do parents firmly correct us when we do something wrong or harmful, even though they love us so much?
2. 죄를 눈감아주지 않으시면서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나의 신앙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Reflecting on God's love—that He neither compromised His justice nor abandoned us, but gave His Son—how does this reshape your heart toward Him?
3.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심판에서 건짐받은 자로서,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함과 감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지 결단해 봅시다.
As someone delivered from judgment by God's great love, what is one practical way you can live out holiness and gratitude in your family and daily life this week?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praise You, Father, for Your boundless love in giving Your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to rescue us from sin and judgment. Keep the grace of the cross firmly in our hearts this week, and empower our family to turn away from sin and reflect Your love to the world.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